



삼수三數의 원리와 완성자


[[우없는 종교세계]]

해님의 뜻인 '삼수의 원리'가 이루어져 드디어 '완성자'로 등극까지의 지난한 발자취 담긴 화보 수록

해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삼위일체 해님이라고 이름하는지 알고 싶은 분은 꼭 읽어야 할 책

한 인간이 해님을 자신 속에 모시기 위해 어떻게 투쟁하고 마귀를 이겨냈는지 그 여정을 사실 그대로 묘사했다

CHAPTER 1-1
동정녀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



동정녀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찬양가사집 '노고산 찬양가사집' (1985년 1월)

대초의 하나님께서는 6천 년 전에 살아버린 두 개, 즉 이남과 해와를 꽃을 꼭꼭으로 거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은 두 씨를 꽃이, 이남과 해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삼위(三位)가 합쳐져 백만동산 하나님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1차로 '예멘동산' 하나가 회복하게 되면, 2차로

11월 다산에 창간 10주년 기념 15

CHAPTER 4-4
임동 중고등학교를 세우다



지남의 임동 중고등학교 모습


논산 훈련소에서 특도법 교관으로 있을 때 하루에 삼백 명씩 일곱에 원사 앞에서 교육을 받았습시다. 교육을 일찍 끝내고 백대원 병모와 원도관에 대한 전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는 사람 중에

164 11월 다산에 창간 10주년 기념 15

고도 그 시원한 영령의 바람은 몇과 깊이 내려가서 몸을 진동할 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이 펼쳐나래 하였습니다.

봉제시 27장 27절
내 아들의 방위는 어포라에서 꼭 주신 일의 향취보다

조제시 14장 5-6절
내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갈스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었고 그의 아름다움은 갈참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반논 백향목 같스라니



1988년 3월 25일경 고베에 사는 후지다 상이 육공면회를 왔을 때, 주님께서는 "3월 23일 난순 거해서 이제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안 가리안게 했다." 라고 말씀 해주었습니다. 사실 1980년도에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원사가 인도할 때에는 수만 명이 가까운 전자들이 수십 개의 내뿜진락 아래서 가아나를 찢고 있어서 처녀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11월 다산에 창간 10주년 기념 15 251



노고산(龍高山) 기암괴석에는 '해님'이라고 한다. 봉우리에 있는 오만제단을


어린 모친 뱀뱀을 뱀뱀에서도 하루라도 예배를 보지 않으면 관할 수가 없으므로 관할상(인양 龍高山) 상정상에 있는 오만제단을 향해 서 올라가면 바위새끼가 온다고 물을 끓여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때는 이리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얼굴에 환사를 붙잡고 으스스한 소리도 속속해 있고 가서는 모로로 뒤집어엎고 밟길권을 하고 개 세듯 하였습니다. 백만만 사람이었다면 백마다가 부러졌거나 불명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보호하신 까닭에 파우 발만 자고나면 헛은 물이 아른 곳이 나타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경 이야기를 가족들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권양이 없는 동생들이 눈치를 채고 즉 신양촌(신양공동동계마을) 명으로 나가버릴까 봐 애를 먹어도 해 빛은 보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해 빛 받은 날이면 해 빛은 창리를 손으로 피해서 푸른 자국을 없앤 뒤

11월 다산에 창간 10주년 기념 15 339

그 밀모아적해가 권봉국 겸사로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 당시 김해산 서면 계승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이 "밀설"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행정구역으로는 계승3리에 속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도님의 형상을 하고 공에 나타내셔서 저사한 영성대로 순종하여 오만제단 터미 숲속으로 내려가 보니, 과연 얼음 천재에 구해나뭇가 가득한 오십대의 밀모아적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밀모아적해 권봉국 겸사는 그분의 모친과 함께 달 카우탄 불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와 인간자 용업



1988년 3월 25일경 고베에 사는 후지다 상이 육공면회를 왔을 때, 주님께서는 "3월 23일 난순 거해서 이제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안 가리안게 했다." 라고 말씀 해주었습니다. 사실 1980년도에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공에 있을 때에 후지다 상이 "일본 땅이 자꾸 바닷속으로 잠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한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후지다 상은 1985년 1월에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나자고 많은 사람이 죽고 경물이 거의 다 부서졌을 때, "오래 세단 건물은 강도 기차 할말을 뽀만 아니라 고베 세단 식구의 정등도 부서지지 않아 '해님'이 같이 하나 보디!" 라고 사정을 찍어보다가 이승상선이 혁하 나왔습

11월 다산에 창간 10주년 기념 15 403

님으로 원시원분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988년 3월 25일경 고베에 사는 후지다 상이 육공면회를 왔을 때, 주님께서는 "3월 23일 난순 거해서 이제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안 가리안게 했다." 라고 말씀 해주었습니다. 사실 1980년도에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공에 있을 때에 후지다 상이 "일본 땅이 자꾸 바닷속으로 잠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한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후지다 상은 1985년 1월에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나자고 많은 사람이 죽고 경물이 거의 다 부서졌을 때, "오래 세단 건물은 강도 기차 할말을 뽀만 아니라 고베 세단 식구의 정등도 부서지지 않아 '해님'이 같이 하나 보디!" 라고 사정을 찍어보다가 이승상선이 혁하 나왔습



11월 다산에 창간 10주년 기념 15 595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김해제단 : (055)327-2072
- 사천제단 : (055)855-4270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수원제단 : (031)236-8465
- 대구제단 : 010-6530-7909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안성제단 : (031) 673-4635
- 마산제단 : (055)241-1161
- 정읍제단 : 010-8628-2758
- 大阪祭壇 : (06)6451-3914
- 평택제단 : (010)5695-8971
- 진주제단 : (055)745-9228
- 군산제단 : (063)461-3491
- Sydney : (006)0415-727-001
- 부산제단 : (051)863-6307
- 진해제단 : (055)544-7464
- 대전제단 : (042)522-1560
- 橫濱祭壇 : (045)489-9343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영천제단 : (054)333-7121
- 청주제단 : 010-5484-0447
- 下關祭壇 : (0832)32-1988
- 神戶祭壇 : (078)862-9522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